

꾸준히 끝까지 한 자가 기회를 맞는다

작성일 : 2012년 2월 3일 (금) 새벽 4시 30분 ~

작성자 : 박 지혜

[철야를 하는 중에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깊이 하다가도 집중이 흐려져서 그 흐름을 놓치고 다시 흐름을 잡고를 반복했습니다.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 도중에 또 그 끈을 놓쳤고, 그것을 깨달았을 땐 이미 주님은 느껴지지 않고 냉랭했습니다. 사람과 말할 때도 그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듣건만, 전능자 주님이 오셔서 대화해 주시는데도 주님과 마음을 맞추지 못한 것이 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스스로를 꾸짖으며 다시 집중했습니다.]

이런 무례한 행동에 면목이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. 그러나 주님은 “두 번은 안 한다.” 하시며 이야기 해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다. 그래도 회개하고 간절히 마음을 풀어 드리려 노력했을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.]

* 예수님 말씀 *

아무리 오랜 기간
뜨겁고 간절히 기회를 기다렸어도
기회가 온 그 순간 그 때 기회를 맞지 못하면
기회는 냉정하게 가 버리고 만다.
기회가 머무는 것은 순간이기에
그 순간 기회를 알아보고
정신 차려 맞지 못하면 끝이다.
기회가 가 버린 후에는
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고
한 번 간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.

기회를 만나는 것은
때를 만나는 것과 같다.
자신이 꼭 해야 할 것을
쉽고 확실하게 이루게 해 준다.
기회를 만났다는 것은
자신의 때에 전도되어 온 것과 같아서
순풍에 돛 단 듯 자기 조건 세우며,
자기가 받을 것을 받으며,
자기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간다.

그러나 때 지나서 오면 조건 세울 때 지났고,
조건 세울 때 지났으니
행하여 받을 것도 못 받고 간다.

이와 같이 기회 잡고 행하면
나와 같이 쉽게 차원 높이며 이루면서 갈 것을
기회 놓치면 힘들고 어렵게,
그나마도 한 차원 낮게 이루며 간다.

이와 같이 다 때가 있다.
하늘에 속한 자들은
하늘의 때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.
하늘의 역사를 따라오는 자가 그 때를 알고 맞는다.
하늘의 흐름을 따라오는 것이며
하늘의 발걸음에 맞춰 함께 걷는 것이다.
그런 자들이 기회를 맞고,
그 순간 행하여
받을 것을 받고 이룰 것을 이룬다.

기회에 대하여
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.
기회를 잡는다는 것은
비약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.
기회를 잡으면 더 좋게 되어 행하며 얻지만,
그것은 비약이 아니다.
이것에 하늘의 비밀이 있다면
늘 기도하고 행한 자,
기회가 오기를 준비하며 기다린 자가
기회를 맞고,
또 그 기회를 맞은 자가
그와 같이 기도하고 실천함으로
역사를 이룬다는 것이다.

고로 기회를 맞음은
절대 비약이 아니라 흘연한 변화이며,
꾸준히 끝까지 한 자의 승리다.
똑같이 기다렸어도
제대로 아는 자는 알고 잡고, 맞음이고
자기 주관대로 믿고 안 자는 몰라서 놓치고,
악평하고, 막음이다.

하늘을 맞든지, 하늘의 일을 하든지
첫째는 자기 주관 없이 하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.
꼭 너희 자신의 주관을 온전히 버리고

내 말씀으로 주관을 세워라.

주관은 곧 중심이요,
그 중심이 나 예수의 것이 아니라면 다 무너지리라.
너희 중심에 오직 나 예수 두기를 간절히 바란다.
기도하며 중심을 온전히 세우는 자
알고 기회를 잡으리라.
곧 나 예수를 맞으리라.
사랑한다.
기회를 잡는데 있어서
늘 긴장하며 맞기를 바란다.
사랑으로 말씀한 주 예수다.